

KDK

홍보라

“사진 이론에 정통하지 못한 나로서는 즉물적 사진 작업에 대해 근사한 비평을 펼칠 수 있는 미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즉물적 사진 중에서도 도시 공간이 모티브로 사용된 서로 닮은 사진 이미지가 넘쳐나는 요즘, 사진 작품 간의 시각적 혹은 개념적 차이나 고유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소위 ‘센’작업을 접하게 되었을 때의 감정적 경험을 느끼게 한 작업이 바로 김도균의 사진이다. 김도균의 작업은 마치 매끈한 할리우드 영화 한 편 속의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그 존재감을 무시하려고 애써도 저절로 눈이 가게 만드는 ‘순수한 엔터테인먼트(Pure entertainment)’의 미덕이 있다. 실상의 공간(대부분은 건축물)을 즉물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실제 포착이 불가능한 세밀한 사진 속 이미지는 한 순간에 실제의 공간을 SF 영화 속 가상 공간의 한 장면으로 전환시킨다. 너무나도 즉물적이고 사실적이나, 동시에 그 어떤 곳보다 낯설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김도균의 사진 속 도시의 이미지는 작품을 실제 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낯선 감각적 경험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